

ENG

광복 80년 국가기록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n National Archives for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광복 80년 국가기록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n National Archives for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80년 전, 독립의 빛이 이 땅을 비추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이제 K-컬처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통해 과거를 넘어, 현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이 전시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Eighty years ago, the light of independence broke through the darkness. From the ashes, Korea rose—achieving astonishing economic growth and blazing the trail of democracy. Today, K-culture is captivating the world. Through this exhibiti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looks beyond the past to showcase our present and the future we will shape together. Here and now, we are the pride of Korea.

## 광복80년 국가기록특별전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2025.8.23.- 8.31.)

주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록을 선보이며 기록문화 확산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협조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향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민속박물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문화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미국국립기록관리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위사업청

부마항쟁기념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유엔기록보존소

전남매일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토지주택박물관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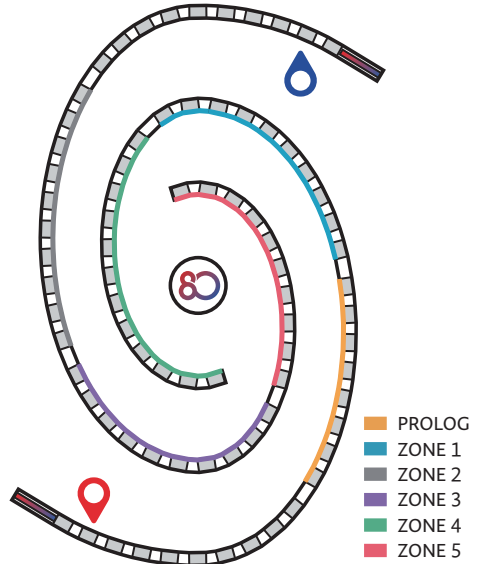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 전시위치도



### 일러두기

본 전시의 기록물은 소장처 중심으로 기재함.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임.

# 목 차

## Contents

### PROLOG

08

---

#### 그날의 환희

The Joy of That Day

### ZONE 1

14

---

#### 이제, 우리나라

Now, Our Nation

### ZONE 2

24

---

#### 갈라진 운명, 하나의 꿈

Divided Destiny, One Dream

### ZONE 3

36

---

#### 도전이 이뤄낸 성장

Growth Achieved Through Challenge

### ZONE 4

50

---

#### 광장에서 일상으로

From the Square to Everyday Life

### ZONE 5

60

---

#### 세계 속의 'K'

"K" in the World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록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온갖 시련에 굴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여 이루어 온 성공의 역사를 각종 기록물을 통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외형적으로는 총 80개의 개별적인 전시물이 어우러져 80년에 걸쳐 이룬 성공의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큰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5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광복의 기쁨, 한국전쟁에 따른 폐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 속의 한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더위와 폭우의 기간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늘막과 야간 전시 등을 준비하였으며 전시물 구성에 디지털 기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께서 지나온 80년을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앞으로의 80년을 향한 희망과 포부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 Message

This year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celebrate thi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hosting a special exhibition on national archive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 entitled,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August 23 to 31). This special exhibition features a wide variety of archives that will give visitors a deeper glimpse into the history of Korean achievements—successes due to our people's indomitable spirit in the face of all manner of hardships since national liberation.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combines a total of 80 individual exhibits that together form a larger structure that symbolizes the historical successes of the last eight decades. It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that cover the joy of liberation, the ruins of the Korean War and the challenges of rebuild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its democratization, and Korea on the world stage.

As this exhibition takes place outdoors during the hot and rainy summer, sun shelters have been set up and displays are lit up so you can visit them during the brightness of the day or the cool of the night. The exhibits also feature cutting-edge digital techniques. Through your visit, I hope you will be able to look back on the last 80 years with pride and find new hopes and aspirations for the next 80 years.

August 2025

**Lee Yong-chul**

Presid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축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복 80년 기념 국가기록특별전-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열 살의 저는 망명지 상하이에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날의 환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선열들의 투쟁을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80년, 우리 국민은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교육을 시작했고, 배고픔 속에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일제강점기 앞이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도 조국광복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뿌리를 두고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거리에 나선 우리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고,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모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보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록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지나온 대한민국 80년을 되짚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우리 국민의 노력과 결실을 돌아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대한민국 100년을 그려보며 희망과 의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8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 Congratulatory speech

I sincerely wish to celebrate with you the opening of the ‘Special Exhibition of National Archives in Celeb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a joint effort by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Commemorative Projects for the 8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August 15, 1945, we finally reclaimed our stolen country. At the age of 10, I celebrated national independence in Shanghai, a place of exile then. I remember vividly the joy of finally winning our freedom back. And I remember the struggles of those who came before me, who did not stop fighting for independence even in the darkest moments.

In the 80 years since then, Koreans have opened up new paths that shine, despite many difficulties. We studied and taught among the ruins of our war-torn nation and developed industries even while struggling with hunger.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spirit of independence of the patriots who desired national independence above all else, even in times when there was no visible sign that the nation would ever be fre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We Koreans, coming from this root, took to the streets thirsting for freedom and worked to protect democracy ourselve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was once a recipient of aid and is now a donor nation; once a colony but now an advanced country. None of this was free. All of it was accomplished by everyone working together.

I think it is meaningful to be able to see the variety of archives of our history of overcoming hardships and winning victorie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 where many Koreans and foreigners visit. Historical archives like these have the power to connect the present to the past. I hope this will b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look back on our efforts to protect our identity as a nation, celebrate the beneficial outcomes of the 80 years since liberation, share hope and imagine new dreams for the Republic of Korea’s next 100 years.

August 2025

**Lee Jong-chan**

President,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Co-Chairperson, 8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Commemoration Committee

## 일제강점기 경성(서울) 시가

Kyungsung (Seoul) C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TRNS-77888-8-7 | 사진 | 1930 | 서울역사박물관



일제강점기 조선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경복궁을 훼손하며 지어졌다. 조선총독부청사 신축을 위해 경복궁의 경문인 광화문은 동쪽으로 이전되었고, 흥례문과 그 일대의 전각들은 철거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복궁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 그날의 환희

그때, 여기,  
광장의 우리는 빛을 되찾았다.

1945년 8월 15일, 어둠을 뚫고 마침내 터져  
나온 빛의 순간.

대한독립 만세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그날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자유를 되찾은 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 The Joy of That Day

At that time, here in this very  
plaza, we reclaimed the light.

August 15, 1945: The moment light  
burst through the darkness.

That day, we could finally shout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The streets roared with jubilation. This  
is where we honor the thrill of reclaim-  
ing freedom,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Korea’s journey.

# 동포여 다함께 새아침을 맞자

이하윤, 「동포여 다함께 새아침을 맞자」,  
『해방기념시집』, 1945.12, 중앙문화협회

우리 해방이다. 그러니깐 우리 준비 하자.  
갈 준비 하자

8월 17일 해방 소식을 들은 군인의 말, 『서울 사람이 겪은 해방과 전쟁』,  
2011년, 서울시



1945년 광복을 환호하는 사람들  
People Cheering for Liberation in 1945  
DTA0017552-2.1 사진 | 1945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3·1운동 당시 경성(서울)에서의 만세 행렬

A “Manse” parade in Kyungsung (Seoul) dur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ET0046064 | 사진 | 1919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압박에 대항하여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으로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함께한 평화적 시위였다.  
March 1, 1919: The Independence Movement rose against Japanese oppression, declaring our nation’s sovereignty to the world through a peaceful, unified protest.



### 기미독립선언서

The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문서 | 1919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명의로 공표한 독립선언서로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

This declaration, proclaimed by 33 national leaders on March 1, 1919, served to announce Joseon’s independence to the world.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 형사 재판서(대정8년, 19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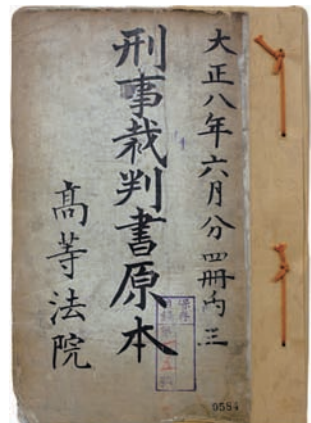
Original Criminal Judgment Document, 8th Year of Emperor Taishō (1919)

CJA0000451 | 문서 | 1919

조선독립(朝鮮獨立), 평화(平和), 만세(萬歲), 독립(獨立), 정의(正義), 자유(自由)

1919년(대정8년) 3·1만세 운동 과정 중에 체포되어 재판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체포의 부당함과 독립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This verdict from the High Cour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records the trials of those arrested dur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Within its pages echo the cries of unjust arrests—and the unwavering hope for independence voiced by countless people.



## 광복을 환호하는 사람들

People Cheering for Liberation

(1) DEU0052745-62 | 사진 | 1945

(2) DEU0052745-63 | 사진 | 1945



## 미국의 소리

### (Voice Of America) 방송

#### Voice Of America Broadcast

178209420 | 음성 | 1945

미국국립기록관리청



음성 QR

1945년 8월 15일 경오 일왕의 패전 선언이 있기 전에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방송이 송출되었다.

Before the Japanese Emperor's surrender announcement at noon on August 15, 1945, 'Voice Of America' broadcast the news of Japan's defeat in Korean—delivered the sound of liberation to a nation still under occupation.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소리(VOA)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설립된 미국의 국영방송이다.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일본의 선전에 맞서 시작되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한국인들에게 주요 국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 광복의 순간

### The Moment of Liberation

DTD0001656-8 | 영상 | 1945



영상 QR

1945년 9월 9일 구 조선총독부 대회의실에서 항복조인식이 진행되었고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총독은 하지(John Reed Hodge) 중장과 미군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세종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On September 9, 1945, the surrender signing ceremony took place in the main hall of the former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be Nobuyuki,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signed the surrender document in the presence of Major General John Reed Hodge and representatives of the U.S. military. Afterwards, countless people gathered at Sejong-ro to share the joy of lib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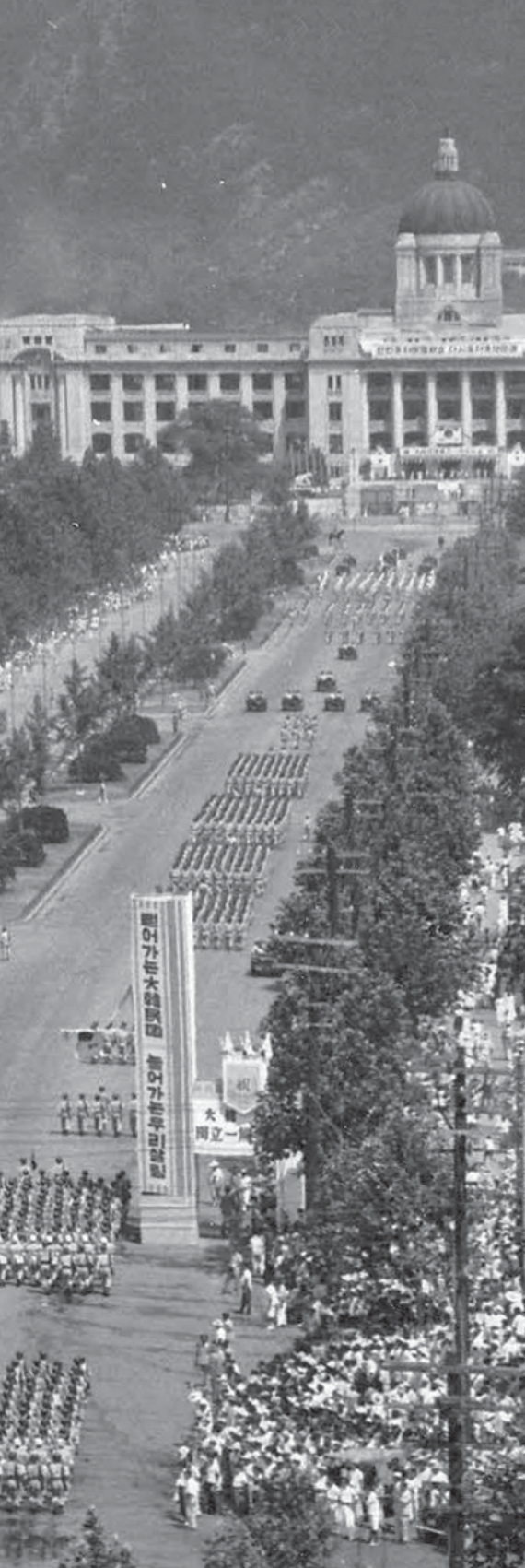


# 1940년대 세종로 광화문 거리

Sejong-ro Gwanghwamun Street in 1940s

DTA0017726-9 | 사진 | 1940년대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이제,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다.

국민의 손으로 다시 만든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세  
계만방에 그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자주와 독립의 의미가 구체적으  
로 실현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 Now, Our Nation

The joy of liberation echoes  
forever in Korea's name.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re-  
born by the hands of its people, inherited  
the great spirit of independence from the  
March 1 Movement and proclaimed its  
birth to the world.

Now, our nation has begun.

This space showcas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meaning of sover-  
eignty and independence was concretely  
realized.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전해주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정래(제헌국회의원)

대한민국 만세!

1948.8.15. 경축식에 참가한  
사람들의 외침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환호하는 사람들  
People cheering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t Central Government Complex Plaza  
CER0000176-1 | 사진 | 1948

##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Celeb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1) DTD0001459 | 영상 | 1948  
미국국립기록관리청

(2) CER000173-1 | 사진 | 1948

1948년 8월 15일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On August 15, 1948, a ceremony proclaim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plaza in front of the Central Government Building (formerl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e crowd filled the square, shouting "Manse!"



영상 QR



## 미소공동위원회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 U.S.-Soviet Joint Commission and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사진 | 1946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미국과 소련 양국은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예비 회담, 1차 회담, 2차 회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회의는 모두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다.

The U.S. and Soviet Union established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Preliminary talks, the first and second meetings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and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meetings were all held at Deoksugung.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 The First U.S.-Soviet Joint Commission

사진 | 1946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협의 대상, 정부수립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first U.S.-Soviet Joint Commission convened at Deoksugung's Seokjojeon Hall in Seoul on March 20, 1946. The meeting addressed issues such as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government and methods for its establishment.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DTC0000292 | 사진 | 1948 | 유엔기록보존소

1948년 3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5.10총선거의 공정한 감시와 관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On March 8, 1948, banners lined the streets to welcome the arrival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e commission was dispatched to Korea to ensure a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on May 10, as manda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May 10, 1948 General Election

DTD0001456 | 영상 | 1948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On May 10, 1948, Korea held its first democratic election to form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The election was conducted under the principles of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voting—marking a historic step toward democracy.



영상 QR



투표소 앞에 줄선 한국인들

Koreans Lining Up Outside Polling Stations

DTC0000001-12 | 사진 | 1948 | 유엔기록보존소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

Voters Receiving Ballots

DTC0000001-1 | 사진 | 1948 | 유엔기록보존소



투표용지 투표함 투입

Placing Ballots into the Ballot Box

DTC0000001-8 | 사진 | 1948 | 유엔기록보존소



투표함 개표

Counting the Ballots

DTC0000001-21 | 사진 | 1948 | 유엔기록보존소

# 대한민국헌법 공포 기념 제헌국회의원 기념촬영

Commemorative Photo of  
Constituent Assembly  
Members at the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사진 | 1948 | 국립민속박물관

제헌국회 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경축하는 기념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앞줄 중앙에 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와 김동원이 앉아 있다.

Photograph taken at the celebra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members promulgating the Constitution on July 17, 1948, with Assembly Speaker Syngman Rhee, Vice Speakers Shin Ik-hee, and Kim Dong-won seated in the front center.



# 제헌헌법(사본)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lica)

문서 | 1948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이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최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Promulgated on July 17, 1948, this Constitution marks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Following the historic May 10 election,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convened on May 31 with 198 members. They formed a committee that drafted the Constitution, adopting Yoo Jin-oh's proposal as the main framework and incorporating Kwon Seung-ryul's as reference.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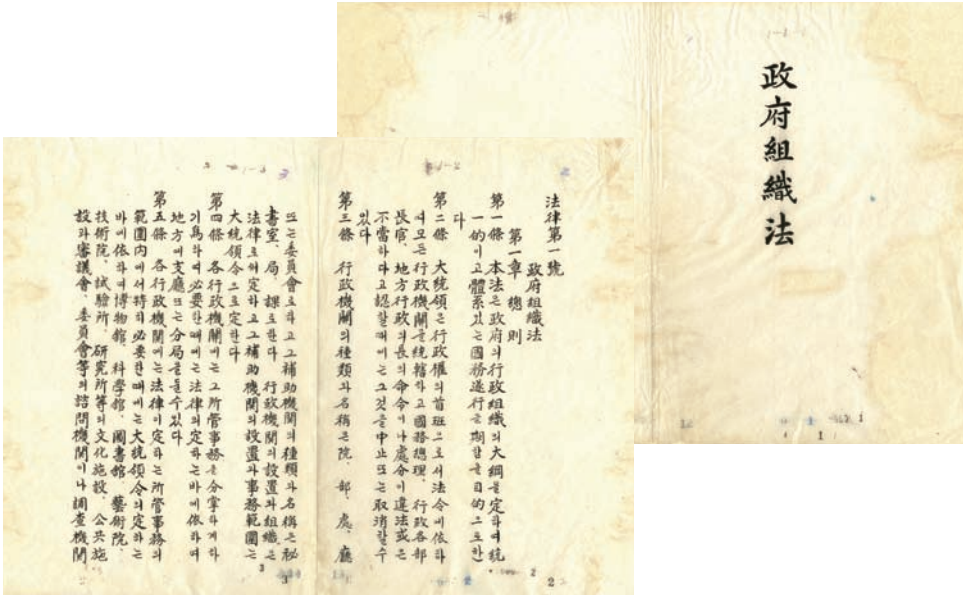
###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Law No. 1

AA0001662 | 문서 | 1948

대통령기록관

1948년 8월 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기구를 11부 4처 3청 2 위원회로 결정하였다. 이 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On August 7, 1948,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designated as Law No.1—established the Republic of Korea’s administrative framework with 11 departments, 4 agencies, 3 bureaus, and 2 committees. This foundational law aimed to lay out a unified and systematic structure for effective national governance.



## 첫 국무회의

### First Cabinet Meeting

CET0071583 | 사진 | 1948

1948년 8월 5일 첫 국무회의 모습.  
Scene of the first cabinet meeting  
on August 5,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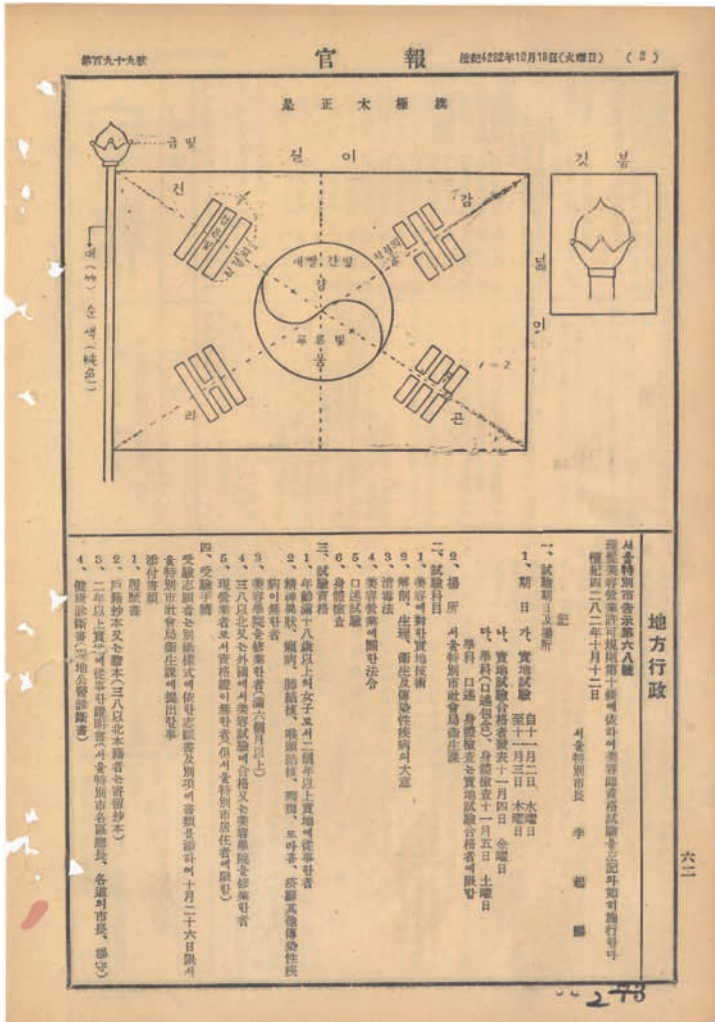
국기 제작법(문교부 고시 제2호)

The National Flag Design Guidelines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

BA0158646 | 문서 | 1949

정부수립 이전까지 태극기는 통일된 기준 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되다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를 통해 규격이 정해졌다.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aegeukgi was used in various forms without standardization. On October 15, 1949,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ndardized its design.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3과 2의 비율로 함”  
 “위치는 건을 왼쪽 위, 곤은 오른쪽 아래, 감을 오른쪽 위, 리를 왼쪽 아래로 함”

# 대한민국 국새

## National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

CET0042907 | 사진  
1949, 1963, 1999, 2011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제1대 국새가 제작되어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제5대 국새가 사용 중이다.

After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national seal was created as a symbol of state authority; and the five official seals have carried the legacy of Korean sovereignty.



제1대 국새(1949)



제2대국새(1963)



제3대 국새(1999)



제5대 국새(2011, 현재 사용 중인 국새)



\*제4대는 제외

# 1950년 세종로 광화문 거리

Sejong-ro Gwanghwamun Street, 1950

구4290 | 사진 | 195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갈라진 운명, 하나의 꿈

전쟁으로 피폐해진 공간에  
평화의 노력이 모이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떠난 피난길  
에서도 삶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땅을 가르고, 삶은 다른 길위에 놓였  
지만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노력은 계속  
됩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확인합니다.

## Divided Destiny, One Dream

Efforts for peace gather  
in a space ravaged by war.

Even on the harsh road of evacuation  
after losing all to war, the will to live  
never faltered. Though artillery fire  
tore the land and life took a different  
path, the efforts to build mutual trust  
endured.

Here, we witness the steps we've tak-  
en to prepare for a new era of peace.

#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6·25전쟁 당시 학도병 이우근의 편지 중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엮시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서울의피난민  
Refugees of Seoul

DTA0017543-13 | 사진 | 1951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6·25전쟁 피난민

### Refugees of the Korean War

- (1) CEN0004918-1 | 영상 | 1951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2) DTD0001448-1 | 영상 | 1951  
미국국립기록관리청
- (3) DTC0000559-11 | 사진  
1951 | 미국국립기록관리청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 6·25전쟁 당시 각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었다.

Triggered by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on June 25, 1950, the Korean War raged for three years, one month, and two days until the ceasefire on July 27, 1953. Throughout the nation, countless people lost their homes and endured great suffering.



영상 QR



## 피난민(경남 김해)

### Gimhae Refugees

DTC0000571-1 | 사진 | 1950

유엔기록보존소

유엔민간구조 특별고문과 통역관이 김해의 피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The UN Civil Relief Advisor and interpreter met with refugees in Gimhae and listened to their stories.

“밥이요.

아직(아침)에 먹고

지직(저녁)에 먹고

나주(낮)에는 못 먹소.

보리쌀로

배급타서 그래요.”



## 피난민 인터뷰(임순근)

### Interview at the Gimhae Refugee Camp: Lim Soon-geun

DTD0001681 | 음성 | 1950

유엔기록보존소



음성 QR

유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정보 수집과 홍보를 담당했던 조지 모브슨(George Movshon)이 1950년 9월 18일 김해에 있던 피난민 수용소를 방문해 피난민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당시 71세의 임순근으로, 경상남도 창원군 출신이다. 남편을 전쟁 전에 잃고 전쟁이 일어나자 4남매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On September 18, 1950, George Movshon,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asked with gathering information and publicizing the situation, visited a refugee camp in Gimhae. There, he interviewed Lim Soon-geun, a 71-year-old woman from Changnyeong Count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Having lost her husband before the war, she fled with her four children when the conflict erupted.

## 피난민 인터뷰(정중익)

### Interview at the Gimhae Refugee Camp: Jeong Jung-ik

DTD0001682 | 음성 | 1950

유엔기록보존소



음성 QR

유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정보 수집과 홍보를 담당했던 조지 모브슨(George Movshon)이 1950년 9월 18일 김해에 있던 피난민 수용소를 방문해 피난민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당시 64세의 정중익으로 경상남도 창원군 출신이다. 전쟁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으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추수를 하지 못하고 피난길에 올랐다.

On September 18, 1950, George Movshon,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asked with gathering information and publicizing the situation, visited a refugee camp in Gimhae. Among those he interviewed was 64-year-old Jeong Jung-ik, a farmer from Changnyeong County,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war struck just before harvest—he left his crops behind and fled, trading a season of growth for a road of survival.



## 피난민

### Refugees

DTC0000368 | 사진 | 1950 | 유엔기록보존소

김해와 마산 사이의 전투지에서 빠져나와 피난을 가는 가족의 모습이다.

A family flees from the battlefield between Gimhae and Masan.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나가라 카는데  
 쪽 밀리가지고... 한테 잠을 자고  
 여기 있으면 저 가라 하고 여겨정 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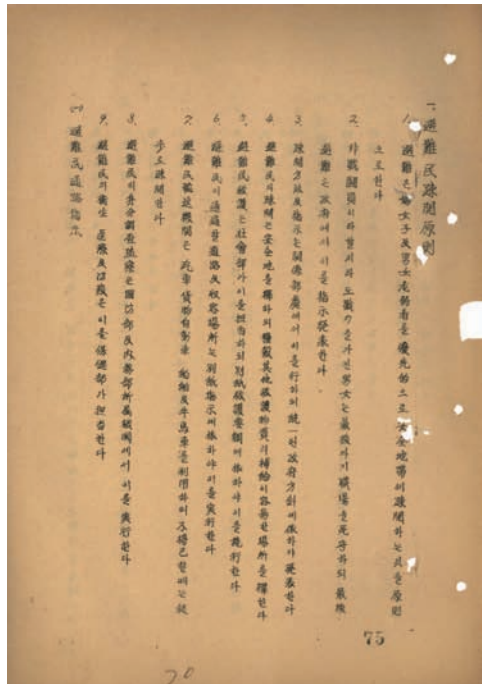
## 피난민소개(疏開) 및 구호요강 송부예 관한 대책문서

### Refugee Evacuation and Delivery of Relief Guidelines Measures Document

BA0852069 | 문서 | 1950

1950년 12월 15일 사회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필요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도에는 두 개의 피난 코스와 피난민 수용 예정 지역이 표기되어 있다.

On December 15, 1950,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established measures to relocate war refugees to safety and provide essential aid. The map shows two evacuation routes and the areas designated for accommodat- ing refugees.



## 휴전회담

### Armistice Talks

CET0048202 | 사진 | 1953

전쟁을 멈추기 위해 유엔군 측과 북한군 측은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시작하였으나 양 군의 경계선 책정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결국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To end the war, UN and North Korean forces began armistice talks in Kaesong in July 1951. However, disagreements such as sett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talled progress. Finally, after two years,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 정전협정 조인식

### Armistice Agreement Signing Ceremony

DTC0000538 | 사진 | 1953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윌리엄 해리스 유엔군 중장) 측과 공산(남일 조선인민군 대장) 측 대표가 정전협정 조인식을 하였다.

On July 27, 1953, at Panmunjom, UN Lt. Gen. William Harrison and North Korean Gen. Nam Il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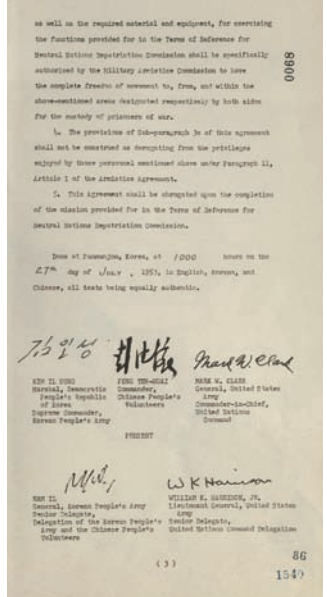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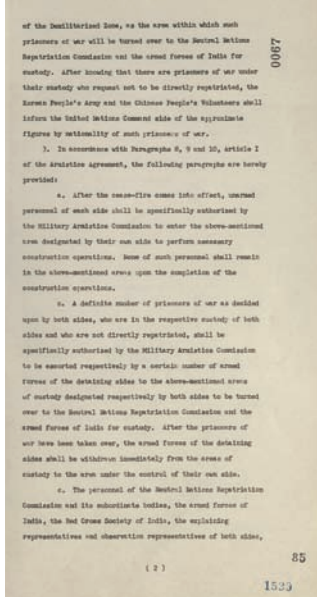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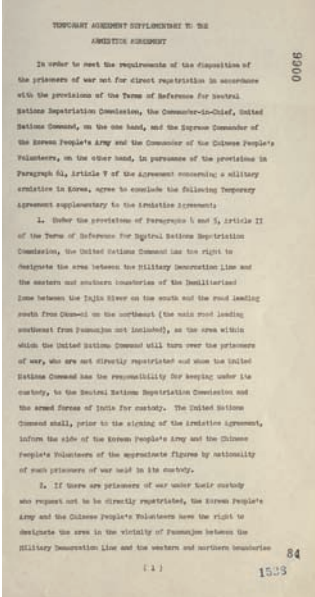
## 정전협정문(사본)

### Armistice Agreement (copy)

CA0005972 | 문서 | 1953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On July 27, 1953, at Panmunjom,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y United Nations Commander Mark Wayne Clark, North Korean Supreme Commander Kim Il-sung, and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Commander Peng Dehuai, bringing a ceasefire to the brutal Korean War.



## 군사분계선 푼말

### Military Demarcation Line Marker

CE70022816-54 | 사진 | 1957

6·25전쟁이 끝날 때 양군의 현실적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성립되었다. 양군은 군사분계선에서 다시 각각 2km씩 후방으로 철수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armistice was concluded by designating the actual contact line between the two forces a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Both sides withdrew 2 km from the MDL to establish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ich remains to this day.



## 남북 첫 적십자회담

First Inter-Korean Red Cross Talks

CET0033765-1 | 사진 | 1971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 이후, 1971년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이산가족찾기 제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On August 15, 1970, in his Liberation Day address, President Park Chung-hee announced the “Peaceful Reunification Initiative,” expressing his willingness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and to take steps to resolve humanitarian issu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Following this declaration, inter-Korean Red Cross talks began in 1971, initiated by Choi Doo-sun,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who proposed a program to locate separated families.



## 7.4 남북공동성명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문서 | 1972

“자주, 평화, 대단결,  
교류, 이해”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쌍방은 제1항에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에 합의하였다.

On July 4, 1972,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issued a historic joint statement on unification. The statement affirmed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and national unity as the foundation for reunification, and agreed to hold Red Cross talks to facilitat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최근 정당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이 이 후 약 중앙정보부장인 1972년 5월 2일 주미 5월 5일 까지 정당을 방문하여 정당의 김 일 주 조지프 조우장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 일 주 부장을 대신한 박 실 실 제2 부장인 1972년 5월 20일 주미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 후 약 주장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조국적 평화통일을 좌우해서 국제화 한다는 공동선 원칙을 안고 확실한 회담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오랜동안 서로 만나고서 못한 결자로 생긴 남북 사치적 오해의 불신을 풀고 건강적 고교를 환기시켜서 나아 가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울러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견해의 일치점을 보였다.

1. 양국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최후에 의존하거나 최후에 단념을 담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이산가족의 만남

###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 (1) CEN0001292 | 영상 | 1983
- (2) CEN0001524-3 | 영상 | 1985
- (3) 영상 | 2018 | 대통령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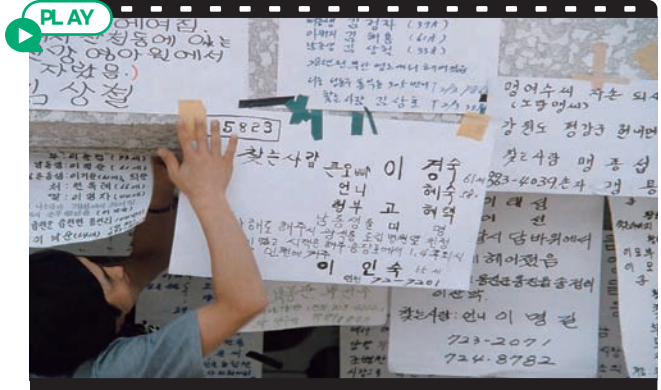


영상 QR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 한국방송공사(KBS)에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이산가족상봉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이로써 10,189 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다. 이후 1985년에서 2018년까지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어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었다.

From June 30 to November 14, 1983,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aired a 453-hour program dedicated to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enabling 10,189 families to reconnect. Following this landmark broadcast, multiple family reunions took place between 1985 and 2018, offering moments of healing amid decades of division.



## 남북 이산가족 상봉

### Inter-Korean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 (1) DET0058826-11 | 사진 | 2000
- (2) DET0058826-22 | 사진 | 2000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어머니와 자식, 자매와 부부가 상봉하는 장면이다.

This is a scene of mothers and children, sisters and spouses, reuniting after being separated by war and division.



## 2000년 남북정상회담

### 2000 Inter-Korean Summit

사진 | 2000 | 통일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등을 담은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On June 15, 2000, President Kim Dae-jung and Chairman Kim Jong-il held the first-ever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The meeting resulted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called for independent resolution of reunification issues, family reun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ociocultural fields.



## 6.15 남북공동선언

###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문서 | 2000 | 대통령기록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작성된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On June 15, 2000, amid the historic South-North summit in Pyongyang, President Kim Dae-jung and Chairman Kim Jong-il forged the landmark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declaration boldly embraced the autonomous resolution of reunification, acknowledged shared principles between South Korea's confederation proposal and North Korea's low-level federation plan, and pledged exchanges of separated family visits alongside expanded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 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75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가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76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하도록 정중히 요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177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2007 Inter-Korean Summit

사진 | 2007 | 대통령기록관

2007년 10월 2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사회문화의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분야 협력 등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였다.

On October 2, 2007, President Roh Moo-hyun and Chairman Kim Jong-il held an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The summit led to the October 4 Declaration, outlining cooperation in economic, sociocultural, and humanitarian area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inter-Korean relations.



## 2018년 남북정상회담

### 2018 Inter-Korean Summit

사진 | 2018 | 대통령기록관

2018년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두차례 개최하였다. 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경제 사회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On April 27 and May 26, 2018,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ong-un held two inter-Korean summits at Panmunjom. These meetings resulted in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which included measures for easing military tensions, denuclearization, building a peace regime, and expanding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 1970년대 세종로 광화문 거리

Sejong-ro and Gwanghwamun Street in the 1970s

CET0042167-3 | 사진 | 1974



# 도전이 이뤄낸 성장

땀과 도전으로 이뤄낸 성과가  
기적과 같은 성장을 보여준다.

갯더미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도전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국민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을 이루  
어낸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 Growth Achieved Through Challenge

Achievements born of sweat  
and challenge reveal a growth  
nothing short of miraculous.

Even amidst the ashes, our relentless  
drive never stopped—achieving what  
once seemed impossible. Every moment,  
every citizen, was a miracle.  
Here, witness the dazzling leap of Korea.

우리에게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트일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어요

2023.9.13. 경북매일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인터뷰 중



근로자의 모습  
The Workers  
CET0064485 | 사진 |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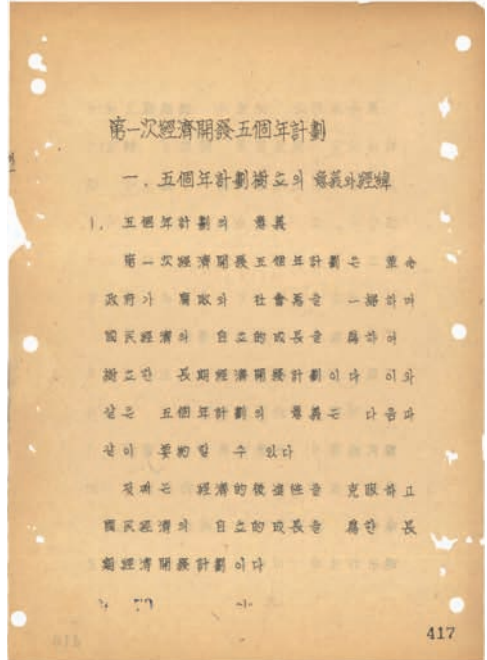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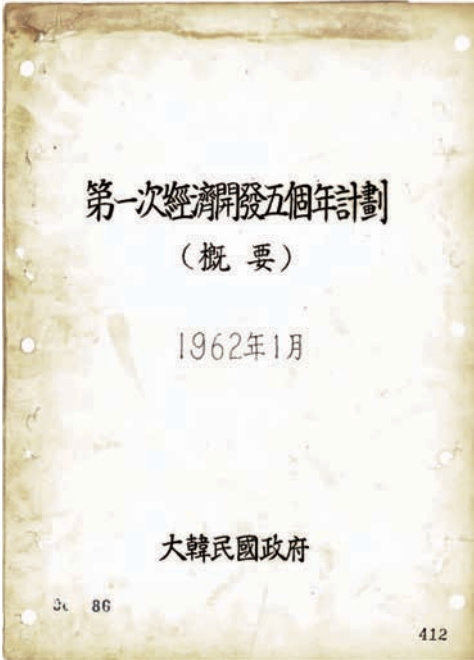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DA0547078-34 | 문서 | 1962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표한 문서로 경제개발 계획의 필요성, 경위와 기본 방침 등이 소개되어 있다.

This document formally announced South Korea's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outlining the urgent need for economic growth, the historical context behind the plan, and the core policies designed to drive the nation's transformation.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이다.”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새나라 건설을 위하여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 Building a New Nation

CEN0002520-1 | 영상 | 196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홍보 문화영화로 전력, 공장, 금융, 농어촌 개발 등 산업분야별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This film served as a promotional and cultural showcase of the First Five-Year Plan's ambitious targets across key industries—power generation, manufacturing, finance, and rural development—highlighting the nation's progress.



#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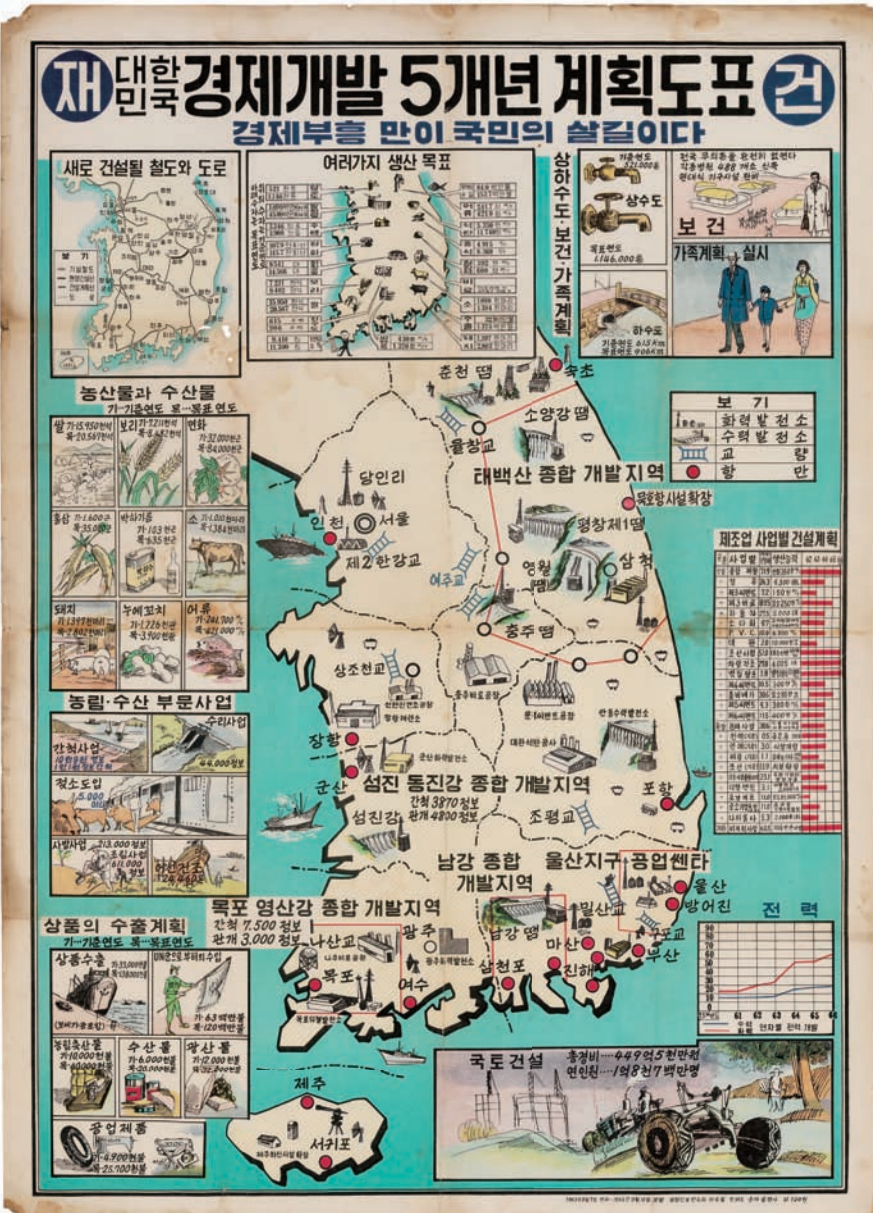
Chart of Korea's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행정박물관 | 1964 | 토지주택박물관

1962년부터 5년간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와 진행사항을 도표화 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 계획, 국토건설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A charted overview of the First Five-Year Plan (1962-1967), showing key targets and progress across industries, land development, and national infrastructure.

“경제 부흥만이 국민의 살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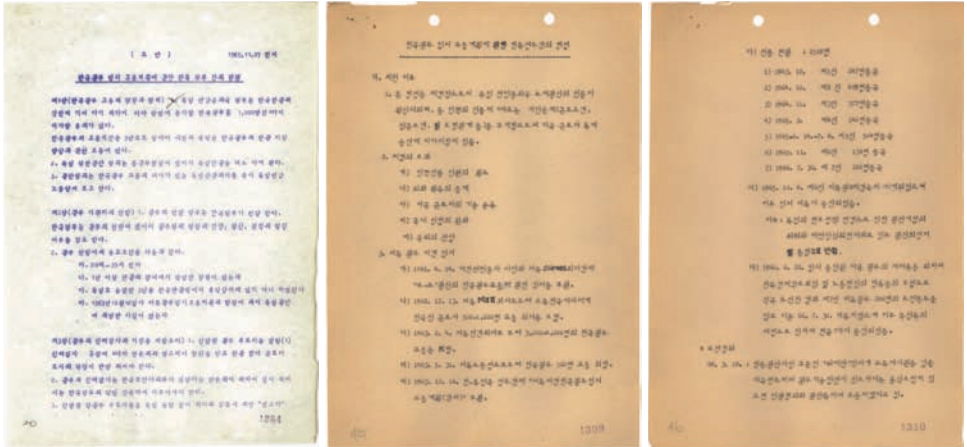


## 한·독일간의 광부 협정

### Korea-Germany Miner Agreement

CA0006767-1 | 문서 | 1963

1963년 12월 16일 「한국광부 파견에 관한 한·독협정서」가 체결되었다. 이 문서에는 독일 측에서 요청한 선발 조건(나이, 경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On December 16, 1963, the Korea-Germany agreement formalized the deployment of Korean miners to German coal mines. The document detailed stringent selection criteria (including age and experience), reflecting Germany's precise labor demands.



### <파독 광부 선발 응모 조건>

가. 20~35세인 자

나. 1년 이상 탄광의 갱내에서 작업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독일로 출발전 3년 중 한국 탄광직에서 휴직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자

라. 1963년 12월 16일자 파독광부임시고용계획의 협정에 의거 독일 광산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 한국 광부의 독일 파견

### Dispatch of Korean Miners to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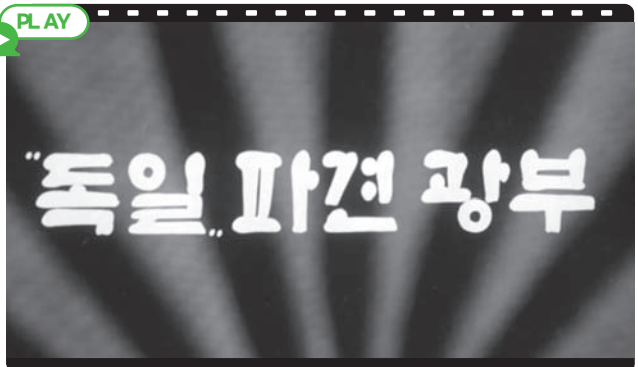
CEN0000428-4 | 영상 | 1965

1965년 3월 한국은 독일에 탄광 근로자 파견을 시작하였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부 독일로 탄광 근로자 540명이 출국했다. 파견된 광부들은 월수입 650마르크에서 950마르크 정도를 받았다.

In March 196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dispatch of coal miners to Germany. Between March 18 and 28, 540 miners departed, earning monthly wages between 650 and 950 Deutsche Marks.



영상 QR



##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

### Dispatch of Korean Nurses to Germany

CET0069908-2 | 사진 | 1966

1966년 1월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 간 협정’을 통해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이 시작되었다.

Starting January 1966, Korean nurses began being dispatched to Germany through the Korea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and a 1969 agreement with the German Hospital Association.



〈월급봉투〉  
 그것은 단순한 숫자를 담은 봉투가 아니다!  
 그대는 그 사실을 아는가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굳어서 만들어진 종이인가  
 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엉켜서 만들어진 기록인가  
 숫자속에 숨어있는 업적은  
 그 숫자보다 크고 깊고 넓어서 계산될수 없는 보석 이라는것을...  
 샷샷고물샷고 음식이 다른 이국에서 언어의장벽을 스스로돌 으면서  
 간호사로서 불규칙한 삼부제 근무시간의 고통을 초월 하여  
 환자들에게  
 식사는제금 하고 (챙겨주고) 투약, 상태관천, 병상감사와  
 수술준비 등 처음과 받도 없는 배려와 간호, 죽는순간까지  
 손잡아주는 깊은마음으로 인간의존엄성을  
 바랄 으리한 봉사 정신 인것은 . . . .  
 그외에도 또얼마나 자주 근무시간을 연장 (overtime) 하고  
 공휴일에도 Nitinpalce 의 선서를 위해서로 열심히  
 다 했으며 (생사를 헤메는환자의 건강회부를 위해)  
 기도 하였는가  
 아울러 세금, 연금보험, 실직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를위한 참여금도 두루가득된 문서일을 . . . .  
 월급봉투 계산서는 이모두를 기록으로 남히고있노라!  
 2013년 9월 27일  
 이 현순  
 파독간호사

### 〈월급봉투〉

그것은 단순한 숫자를 담은 봉투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굳어서 만들어진 종이인가  
 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엉켜서 만들어진 기록인가

### 파독 간호사의 글

#### Writing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DTA0011415 | 문서 | 2013 | 이현순 기증

파독간호사 이현순이 월급 봉투를 받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메모로 남겼다. Nurse Lee Hyun-soon, dispatched to Germany, reflected on the worth of her labor in a memo after receiving her paycheck.

##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식

\$10 Billion Export Day Ceremony

CET0025022-25 | 사진 | 1977

1977년 12월 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0억 달러 수출의 날 기념식' 모습이다.

A scene from the December 22, 1977 ceremony at Jangchung Gymnasium in Seoul celebrating Korea's \$10 billion export milestone.



## 수출 산업의 근로자

Export Industry Workers

CEN0005712 | 영상 | 1970년대

1970년대 봉제와 섬유 등의 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분야였다. 이런 산업 환경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수출 역군'으로 불리며 국가적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다.

During the 1970s, the garment and textile industries stood at the forefront of Korea's export economy. The workers who powered these sectors earned the title of 'export warriors,' becoming living symbols of the nation's rapid industrial rise.



영상 QR

## 전태일의 편지

### Jeon Tae-il's Letter

편지 | 197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태일 재단 기증)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This is a letter sent by martyr Jeon Tae-il to the president, pleading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young women in Peace Market,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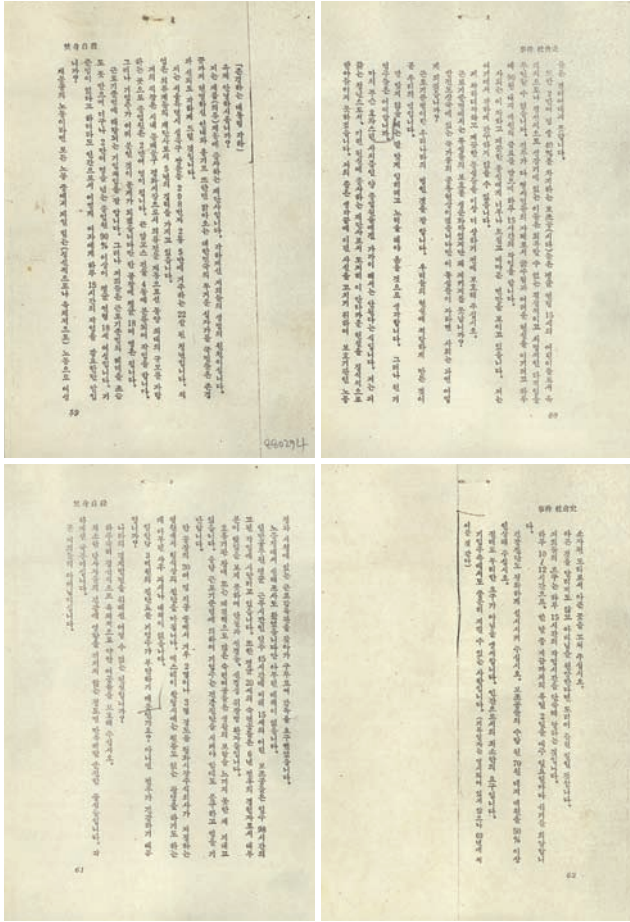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루속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새마을운동

### Opening of the Gyeongbu Expressway and the Saemaul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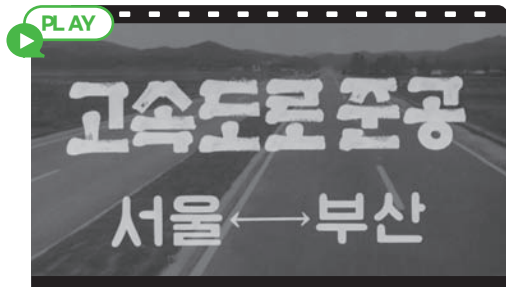
(1) CEN0007801 | 영상 | 1970

(2) CEN0005459 | 영상 | 1998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되어 1970년 7월 7일 준공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3대 정신으로 삼았다.

The Gyeongbu Expressway, connecting Seoul and Busan, began construction in February 1968 and was completed on July 7, 1970.

The Saemaul Movement, launched in 1970, was a nationwide community development campaign found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영상 QR

## 경부고속도로

Scenes from the Gyeongbu Expressway

CET0034018(8, 24) | 사진 | 1972



## 새마을 깃발아래 작업을 하는 사람들

Workers Under the Saemaul Flag

CET0069983-5 | 사진 | 1972



## IMF 금융위기와 금모으기 운동

###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Gold Collection Campaign

(1) DEW0006128 | 영상 | 1997  
문화방송

(2) CEN0005851-1 | 영상 | 1998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뒤이어 12월 3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승인을 받았다. 이후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35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On November 21, 1997,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Im Chang-yeol announc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eek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By December 3, South Korea secured a \$21 billion bailout from the IMF. In response, the nationwide gold collection campaign was launched to overcome the crisis, with over 3.51 million citizens joining in solidarity.



영상 QR



## 1970~1980년대 한국의 산업 발전

### Korea's Industrial Growth in the 1970s-80s

CEN0004764-5 | 영상  
1970~1980년대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 기계 등의 산업상을 보여주고 있다.

From the 1970s through the 1980s, this captures the dynamic scenes of industries like automotive, steel, shipbuilding, chemicals, and machinery in full operation.



영상 QR



## 포항제철 용광로

Pohang Steelworks Blast  
Furnace

CET0030546 | 사진 | 1971



## 조선산업

Shipbuilding Industry

CET0037925-4 | 사진 | 1972

부산 대한조선공사의 선박 건조 작업 모습이다.

At the Korea Shipbuilding & Engineering Corp. in Busan, massive ships take shape—testament to Korea's industrial might.



## 반도체와 우주개발

### Semiconductor and Space Development

- (1) 영상 | 2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영상 | 2024 | 우주항공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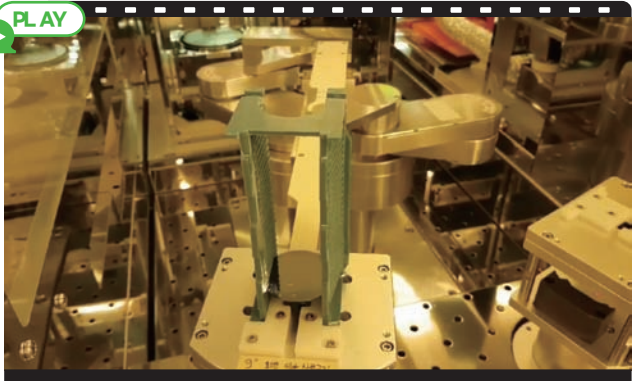
영상 QR

1981년 반도체공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3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이 실용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여 우주개발 경쟁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ok off with the 1981 Semiconductor Industry Promotion Plan, propelling South Korea to global leadership in memory chip technology.

The Nuri rocket, a Korean launch system developed entirely with domestic technology, successfully completed its third launch in 2023. This milestone enabled South Korea to secure independent space launch capabilities for practical satellites, laying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in the global space race.



# 누리호3차 발사

Third Launch of Nuri Rocket

사진 | 202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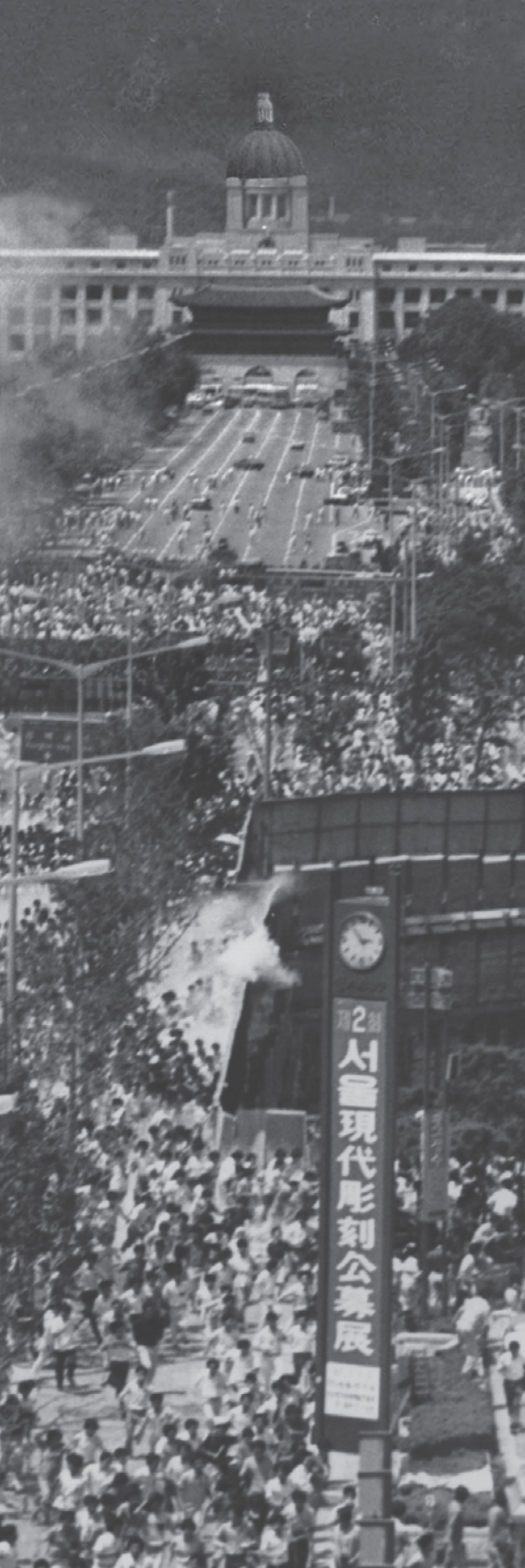


# 1980년대 세종로 광화문 거리

Sejong-ro and Gwanghwamun Street in the 1980s

사진 | 1980년대 | 정태원 제공





# 광장에서 일상으로

광장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망이 일상으로 실현되다.

변화는 광장에서 시작되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참여의 힘은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왔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열어낸 새길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의 힘으로 바뀐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해 조명합니다.

## From the Square to Everyday Life

The cry for democracy that rose from the square has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Change began in the square—and became a part of daily life. The people's voices and the power of participation shaped historic turning points. The new path forged by dynamic democracy is now a source of national pride. This space highlights the democratic values that the people of Korea have transformed through their own efforts.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만세! 민권은 이겼다!

1960.4.26. 조선일보



서울역 광장 대학생 시위  
Student Protest at Seoul Station Square  
DET0036005 | 사진 | 1980

## 4·19혁명

April 19 Revolution

CET0042916-1 | 사진 | 1960



영상 QR

3.15 부정선거에 맞선 국민들은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

In response to the fraudulent March 15 elections, the people rose in the April 19 Revolution, forcing President Syngman Rhee to resign and paving the way for democratic reform.



## 4월 19일

### 여성과 아이들의 시위

April 19 Protest  
by Women and Children

00732787 | 사진 | 1960 | 경향신문

1960년 4월 19일 시위가 확대되며 여성과 아이들도 동참했다.

As the April 19, 1960 protests grew, women and children also joined the demonstrations.



## 2·28대구민주화운동

February 28  
Democracy Movement

사진 | 1960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0년 2월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The February 28 Democracy Movement was a pro-democracy protest led by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 3·8대전민주의거

March 8 Democratic Uprising

사진 | 1960

대전광역시3.8민주의거 기념관

1960년 3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The March 8 Democratic Uprising was a pro-democracy movement led by high school students in Daejeon from March 8 to 10, 1960, in protest against the corruption and injustice of the regime.



## 부마항쟁

BUMA Democratic Uprising

사진 | 1979

부마항쟁기념재단(경광삼 제공)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독재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이다.

In October 1979, large-scale pro-democracy protests led by students and citizens erupted in Busan and Masan against the Yushin dictatorship.



## 서울의 봄과 5·18민주화운동

The Seoul Spring and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 (1) DEW0001981 | 영상 | 1980
- (2) DEQ0015977 | 영상 | 1980
- (3) DES0003892-59 | 사진 | 1980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가 끝난 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시기를 말한다.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군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다.

The “Seoul Spring” refers to a period of widespread public anticipation for democratization following the end of the Yushin dictatorship.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ok place in Gwangju and Jeonnam around December 12, 1979, and May 18, 1980, opposing the new military regime and calling for democracy.



영상 QR



## 인천5·3민주화운동

Incheon May 3 Democratic  
Uprising

0711770 | 사진 | 1986 | 경향신문 제공

1986년 대통령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다.

Protest in front of Incheon Citizens' Hall in 1986 demanding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 고 박종철 추모미사(명동성당)

Memorial Mass  
for the Late Park Jong-chul  
(Myeongdong Cathedral)

DSD0000154 | 영상 | 1987

고재성 기증



영상 QR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은 물고문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On January 14, 1987,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ark Jong-chul died under water torture at the Seoul Namyong Anti-Communist Investigation Unit. His death sparked gatherings at Myeongdong Cathedral, which became the immediate catalyst fo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 6월 항쟁

(연세대학교 교 이한열 국민장)

June Democratic Uprising  
(National Funeral of Late Lee  
Han-yeol, Yonsei University)

DET0042791-13 | 사진 | 1987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뒷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7월 5일 사망하였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되었다.

From June 10 to 29, 1987, a nationwide pro-democracy uprising unfolded. Lee Han-yeol, a Yonsei University student at the time, was struck in the back of the head by a tear gas canister during the June 9 protest and died on July 5.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led to the 9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troduc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 1987년 대통령직선제 선언

Declaration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1987

CEN0010754 | 영상 | 1987



영상 QR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Triggered by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of 1987, Roh Tae-woo, leader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announced the ‘June 29 Declaration,’ accepting the demand for constitutional reform to implemen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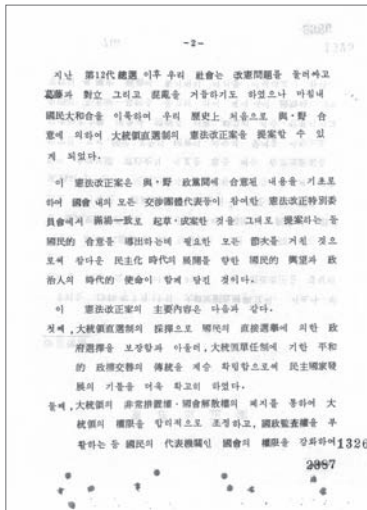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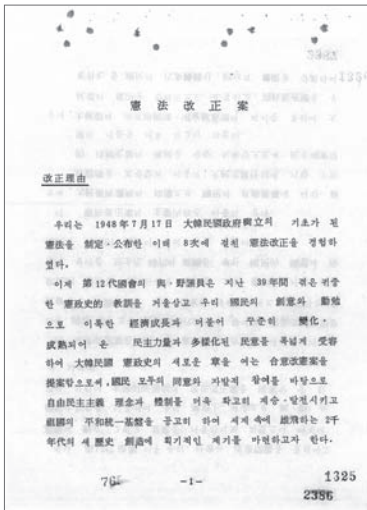
## 제9차 헌법개정안 공포

Announcement of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BA0085106-43 | 문서 | 1987

6.29선언 후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대통령직선제,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이 수록된 개정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었고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Following the June 29 Declaration,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carried out, introducing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nd expanded civil rights. The amended constitution was ratified by referendum and promulgated on October 29, 1987, marking the start of the Sixth Republic.



###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부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 1991년 광역의원 선거

1991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DET0004193-1 | 사진 | 1991



## 1997년

### 제15대 대통령선거

Voting in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1997

DET0058228-2 | 사진 | 1997



## 2000년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DET0058722-1 | 사진 | 2000



## 2004년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DET0059498-8 | 사진 | 2004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고령(109세), 최연소  
유권자(18세)**

2025 21st Presidential  
Election: Oldest Voter (109),  
Youngest Voter (18)

사진 | 2025 | 전남매일 뉴스

2025년 6월 3일 광주 동구 관내 유권자 중 최고령인 김정자 할머니(109세)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날 북구 동림동 제1투표소에서 만18세 전우현군(고려고)이 첫 투표를 하고 있다.

On June 3, 2025, Kim Jeong-ja (109 years old), the oldest voter in Gwangju's Dong-gu district, casts her precious vote. That same day, Jeon Woo-hyeon (age 18), a student at Korea High School, casts his first vote at the 1st polling station in Dorim-dong, Buk-gu.



# 2023년 서울 빛초롱 축제

2023 Seoul Lantern Festival

사진 | 2023





# 세계 속의 'K'

대한민국의 K 파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었던 문화의 힘'이 되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와 나란히 걷고 때로는 앞서 나아갑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었던 문화의 힘'은 이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인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힘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 "K" in the World

Korea's K-Power, reborn as the 'power of culture we have endlessly yearned for'.

South Korea now strides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world, sometimes even leading the way.

The 'power of culture we have long yearned for' now resonates across the globe.

This place is where the world feels Korea's profound strength that inspires and uplifts.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하나가 된 강한 나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02.6.30. MBC 2002 월드컵 인터뷰 중



2015년 런던 코리아안 페스티벌에 모인 K팝 해외 팬  
Global K-Pop fans gathered at the 2015 London Korean Festival  
사진 | 2015

**1988 서울 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988 Seoul Olympics  
 2002 FIFA World Cup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1) CEN0005027-2 | 영상 | 1988
- (2) CEQ0002472 | 영상 | 2002
- (3) DEW0004415-6 | 영상 | 2018



영상 QR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한국은 16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성적 4위를 기록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 경기는 강원도의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에서 열렸고 대한민국은 종합성적 7위를 기록하였다.

Seoul hosted the 24th Summer Olympics from September 17 to October 2, 1988. Out of 161 participating nations, South Korea secured 4th place in the overall medal rankings.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took place from May 31 to June 30. South Korea advanced to the semifinals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ere held from February 9 to 25, 2018. Events took place across PyeongChang County, Jeongseon County, and Gangneung City in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finished 7th in the overall medal standings.

**1988년 서울올림픽**

1988 Seoul Olympics

DET0043989-17 | 사진 | 1988



**1988년 서울올림픽**  
**굴렁쇠 소년**

Hoop Boy of the 1988 Seoul Olympics

CET0075116-1 | 사진 | 1988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식에서 88호돌이 윤태웅이 굴렁쇠를 굴리고 있다.

At the 1988 Seoul Olympics opening ceremony, 88-ho-dol Yun Tae-woong is rolling a hoop.



## 2002년 월드컵 응원하는 붉은악마

Red Devils cheering with Taegeukgi

- (1) DEZ0001821-9 | 사진 | 2002
- (2) DET0059166-2 | 사진 | 2002

2002년 월드컵 경기 중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붉은악마의 모습이다.  
During the 2002 World Cup matches, the Red Devils cheered holding the Taegeukgi (Korean flag).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1) DEZ0020397-10 | 사진 | 2018
- (2) DEZ0020466-7 | 사진 | 2018



## BTS 슈가의 대취타

BTS SUGA's *Daechwita*

영상 | 2020 | HYBE



영상 QR

BTS 슈가(Agust D)의 ‘대취타’는 전통 군악과 한국 궁중 문화를 현대 힙합으로 재해석한 K-POP이다.

BTS SUGA(August D)'s "Daechwita" is a K-POP track that reinterprets traditional Korean military music and royal court culture through modern hip-hop.



## Endless Korea What's next

Endless Korea What's Next

영상 | 2025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 QR

한국의 고유 문화와 K컬처(K-pop, 스포츠, 게임, 문학 등)를 소개하고 있다. This showcases Korea's unique traditional culture alongside the rising global influence of K-Culture—including K-pop, sports, gaming, and literature.



## K-푸드, K-뷰티

K-Food, K-Beauty

영상 | 2023, 202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QR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 김치, 김밥, 잡채에 대한 영상이다. K-화장품은 1987년 수출 천만불을 달성하고 현재 172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사랑받는 화장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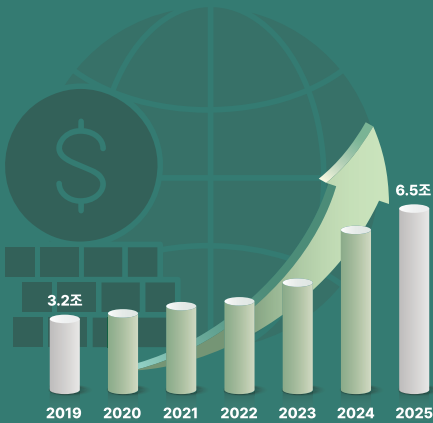
This video features representative Korean foods like bibimbap, kimchi, gimbap, and japchae. K-beauty cosmetics reached \$10 million in exports in 1987 and now are beloved in 172 countries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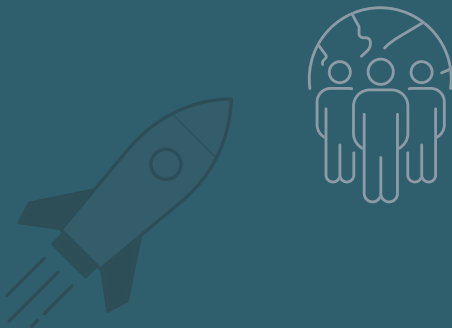


AI시대  
개인정보 보호 국제규범 선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미래를 위한 빛나는 발걸음



글로벌 기술혁신을 이끄는  
**K-스타트업**



## K-라이스벨트

지구촌 식량위기 극복



## K-방역

세계의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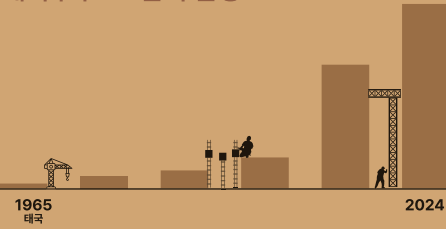


최초의 해양오염사고  
국제 방제 지원



# K-건설

해외수주 1조달러 달성



세계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 K-건설, 해외수주 1조달러 달성
- K-라이스벨트, 지구촌 식량위기 극복
- AI시대 개인정보 보호 국제규범 선도
- 글로벌 기술혁신을 이끄는 K-스타트업
- K-방산, 세계4대 방산 강국에 도전
- K-방역, 세계의 표준화
-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최초의 해양오염사고 국제 방재 지원
- 국제 디지털정부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

# K-방산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도전

국제 디지털정부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



Korea, Proudly Making Its Mark  
on the World  
Korea with the World  
Korea Leading the World

- K-Construction achieves \$1 trillion in overseas orders
- K-Rice Belt helps overcome global food crisis
- Leading global norm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AI era
- K-Startups driving global tech innovation
- K-Defense aim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four defense powers
- K-Quarantine becomes global standard
- From an aid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to marine pollution accident
- Ranks No.1 overall for the second consecutive time in international digital government evaluation



**K-건설 해외수주 1조달러 달성**  
국토교통부

1965년 태국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해외건설산업은 2024년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2025년 3월 31일 기준 발주국 165개국, 총 프로젝트 16,653건에 달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다시 일으킨 토대가 되었던 K-건설산업은 갈수록 치열한 글로벌 건설 경쟁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나선다.



**K-라이스벨트, 지구촌 식량위기를 넘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나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식량위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년 현재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국은 중부 아프리카의 세네갈, 기니, 카메룬과 남부 아프리카의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등 총 14개국에 이른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국제규범 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영국과 공동으로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한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5개국 AI 프라이버시 관련 공동선언문을 주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한국은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AI 시대를 맞이하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마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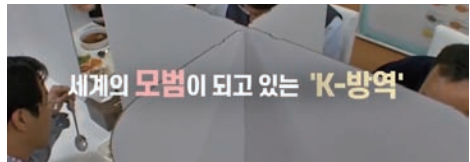
**글로벌 기술혁신을 이끄는 K-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세계 최대 혁신기술 박람회 CES 2025(미국 전자제품박람회)에서 한국 스타트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CES 혁신상은 기술력과 시장성을 두루 갖춘 제품에 수여되며, 전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지표이다. 전세계적으로 총 458개의 혁신상 제품이 선별된 가운데, 한국이 총 229개를 수상하며 최다 수상국에 등극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이중 116개를 수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K-스타트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K-방산,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도전하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2025년 8월 1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2차 이행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원대로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지분을 자랑하며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등에 수출된 K9 자주포,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된 '한국판 패트리엇' 천궁 2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져진 생산력,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방산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K-방역, 세계 표준이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은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높은 백신 접종률, 고령자와 고위험군 환자 선제적 격리, 정부와 공공민간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최저 사망률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K, K-방역을 탄생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 19 대응 교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9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모범사례로 평가했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 19등 감염병 진단기법이 2020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미래를 위한 나눔의 빛나는 발걸음**  
국무조정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사회가 함께한 ODA를 통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 K-ODA를 통해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5년 ODA 규모는 6조 5,010억원으로 24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했다.



 **최초의 해양오염사고 국제 방재 지원**  
해양경찰청

2023년 3월 선박 침몰로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필리핀을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재팀이 파견되었다.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방재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방재팀은 미국, 일본의 국제방재팀과 협력해 기름방제 작업을 돕고 방제 기술을 전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해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OECD 시행 국제 디지털정부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OECD에서 실시한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대한민국이 2019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면서 2회 연속 종합 1위에 올랐다. OECD는 2019년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하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2023년 평가에서는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20배 이상 점수 차이를 보였다.



#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발행처** 국가기록원  
**발행일** 2025년 8월

**제작총괄**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제작담당** 조이형 서비스정책과장  
김자경 기록연구관  
김은형 기록연구관  
김미정 학예연구사  
김경민 기록연구사  
이상우 학예연구사

**주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

**전화** 031-750-2128

**디자인** 디자인공방

이 책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도판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가기록원, 디자이너 및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으므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 변형, 송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문의는 국가기록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ll texts, images, photographs, and plates contained in this book are the copyright and property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designers, and the respective material holders.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opied, reproduced, adap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designers, or the relevant copyright holders. For inquiries regarding these materials, please contac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관람만족도 설문지 바로 가기

보다 나은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 Journey of Light  
through 80 Years of History**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